

연구자료 D193 / 2004. 12.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동향과 전망

박 현 태 연구위원
Allen N. Rae 매시대학교수

연구 담당

박 현 태	연구위원	1, 3, 4장 집필
Allen N. Rae	매시대학교수	2장 집필

머 리 말

뉴질랜드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기후 여건 차이로 원예농산물 생산에서 우리와 보완 및 경쟁 관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대체로 키위, 포도 등 과일은 우리나라 단경기 때 생산되어 우리시장에 수출됨으로써 보완 관계에 있다. 신선채소, 절화는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일본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뉴질랜드는 그동안 목축업 중심의 농업을 전개하여 왔으나 근래 과일, 채소, 화훼 등 원예농산물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수출함으로써 원예농산물 수출이 뉴질랜드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원예농산물의 수출 지향적 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원예농가의 시설 현대화가 추진되면서 원예농산물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신선채소, 화훼류 등 고품질 원예농산물은 우리 농산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원예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 확대를 통한 활로 모색이 요구된다.

원예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와 경쟁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 국가의 원예산업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나아가 뉴질랜드 원예산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에 보완적 측면에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 보고서가 관련 정책 당국이나 연구소, 수출업체 특히 원예농산물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 원예농가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뉴질랜드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기후 여건상 원예농산물 생산에서 우리나라와는 보완 관계와 경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대체로 키위, 포도 등 과일은 우리나라 단경기 때 생산되어 우리시장에 수출되고 뉴질랜드가 단경기 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반구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보완 관계에 있다. 반면에 신선채소, 신선절화는 우리의 가장 큰 농산물 수출 시장인 일본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기후, 토양 등 자연적 조건이 원예작물 재배에 적합하여 품목이 다양하고 품질 또한 우수한 편이다. 여기에 1984년 이래 이루어진 뉴질랜드의 농정개혁이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뉴질랜드가 세계 원예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교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키위는 세계 교역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다. 그 외에 단옥수수 약 9%, 사과와 양파가 각각 4~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뉴질랜드의 원예농산물 시장규모는 총 45억 NZ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내수가 25억 NZ달러, 수출이 20억 NZ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원예산업은 주로 키위, 사과, 포도주, 신선채소, 가공채소의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 아보카도, 올리브, 딸기류, 여름 과일 같은 품목 등은 현재도 수출 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협소한 국내시장 때문에 내수 판매보다는 수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작물재배를 차별화하는 등 수출 지향적 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독점

적 지위를 누렸던 기존의 품목별 Marketing Board를 대부분 해체하고 생산 농가나 전문 수출업체가 직접 수출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의 정책 초점도 원예농산물 수출 촉진에 맞추어져 있다. 최근 수출 시장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원예농산물의 식물위생과 품위를 정부가 보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의 원예산업은 그동안 수출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슴산업, 키위산업의 예에서 보듯이 특정 가축이나 작물이 전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등장하는 등 틈새 품목 중심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종전에는 영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으나 근래에는 호주, 일본, 유럽, 미국, 한국 등 수출 시장을 다양화하고 해외시장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틈새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97년에 뉴질랜드 키위 판매회사인 제스프리인터내셔널이 진출하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연중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되어 키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키위농가에는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키위 외에 두 나라가 보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은 주로 아열대과일과 구근 화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과와 포도 등 우리나라 과일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은 우리나라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일본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부 원예 품목의 경우는 당분간 경쟁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키위나 구근 화훼류 등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전략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Situation and Prospects of Horticultural Industry in New Zealand

New Zealand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livestock farming, since it has wide pastures. However, its production of horticultural products, such as fruits, vegetables and flowers, is rapidly increasing these days. New Zealand's horticultural industry is earning approximately NZ\$4 billion in revenue each year. The revenue is mainly generated from exporting kiwifruits, pipfruits, wine and vegetables. The volume of horticultural export has grown from NZ\$200 million to more than NZ\$2.1 billion over the past 20 years. Likewise, the horticultural industry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both through export and attracting tourists who desire to taste exotic produces of the country.

In the agricultural sector, New Zealand has complementary and competitive relationships with Korea. Since the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climates, they can complement each other. For instance, Korea imports fruits, such as kiwifruits and grapes from New Zealand, when Korea is in the off-fruit season. However, in the Japanese market, New Zealand and Korea are competing each other in selling fresh vegetables and flowers.

Horticulture accounts for an increasing portion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in Korea. In the context, Korea is working on the policy to boost horticultural export. In order to develop the Korean horticultural industry further,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ew Zealand's horticultural industry. Plus, Korea and New Zealand need to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s, such as exchange of information, to jointly deal with the Japanese marke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ew Zealand's horticultural industry in terms of production, marketing and trade, and to explore potential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horticultural industry.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2
제2장 뉴질랜드의 농업 개황	4
1. 뉴질랜드 농업의 특징	4
2. 뉴질랜드의 농산물 생산	8
3. 뉴질랜드의 농산물 무역	12
제3장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동향과 전망	17
1. 원예산업 개요	17
2. 사과산업의 동향과 전망	26
3. 포도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30
4. 채소산업의 동향과 전망	33
5. 화훼산업의 동향과 전망	37
제4장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발전 가능성과 시사점	41
1. 원예산업의 발전 가능성	41
2. 시사점	44
3. 한·뉴질랜드 간 협력 가능성	46
참고 문헌	48

표 목 차

제2장

표 2- 1. 농업 부문 비교우위 지수	5
표 2- 2. OECD국가의 생산자보조 추정치(전 상품)	6
표 2- 3. 농업노동력 변화	11
표 2- 4.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출과 수입 현황	14

제3장

표 3- 1. 세계 과일과 채소의 품목별 구성비, 2003	18
표 3- 2. 뉴질랜드의 원예농산물 시장규모, 2003	18
표 3- 3. 원예작물 재배규모, 2002	21
표 3- 4. 과일 품목별 재배 현황	22
표 3- 5. 원예산업 작물별 투자 현황, 2002	24
표 3- 6. 원예 주요 품목별 수출액 추이	25
표 3- 7. 사과 생산 현황	26
표 3- 8. 사과 수출 품종과 수출 지역, 2003	27
표 3- 9. 포도주용 포도 품종별 생산량과 구성비	31
표 3-10. 품종별 포도주 수출량	31
표 3-11. 채소류 재배 및 수출 현황, 2003	34
표 3-12. 화훼류 수출 추이	39

그림 목 차

제2장

그림 2- 1. 농산물 주요 품목별 비중 변화	10
그림 2- 2. 농업 부문의 GDP구성 변화	13
그림 2- 3. 총 교역에서 농산물(식품 포함) 수출입 비중	14
그림 2- 4. 농산물(식품 포함)의 지역별 수출 비중	15

제3장

그림 3- 1. 농축임산물 지역별 생산 분포	20
--------------------------------	----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뉴질랜드는 그동안 목축업 중심의 농업을 전개하여 왔으나, 근래 과일, 채소, 화훼 등 원예농산물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원예농산물 연간 생산액은 40억 NZ달러로 이 가운데 20억 NZ달러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이처럼 원예농산물 수출이 뉴질랜드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기후 여건상 원예농산물 생산에서 우리나라와는 보완 관계와 경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대체로 키위¹, 포도 등 과일은 우리나라 단경기 때 생산되어 우리시장에 수출되고 뉴질랜드 단경기 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반구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보완 관계에 있다. 반면에 신선채소, 화훼는 우리의 가장 큰 농산물 수출 시장인 일본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¹ 뉴질랜드에서 키위는 3가지 범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뉴질랜드 사람(New Zealander)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뉴질랜드의 국조(國鳥)인 키위새(kiwibird)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세 번째는 과일 일종인 kiwifruit에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kiwifruit이 키위로 통용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키위는 kiwifruit를 의미한다.

근년 우리나라도 원예농산물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신선 원예농산물 수출이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는 데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 지향적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원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보완 및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원예산업 동향을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남반구에 위치하면서 우리와 경쟁 및 보완 관계에 있는 뉴질랜드 원예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향 파악을 통해 뉴질랜드 원예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 상호 보완 관계 속에서 양국의 원예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뉴질랜드는 위도의 폭이 넓기 때문에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는 뉴질랜드 원예산업 동향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품목보다는 과일, 채소, 화훼에 대한 유별 동향과 전망을 언급하였다. 다만 과일의 경우 사과와 포도(포도주)는 뉴질랜드의 원예산업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한 산업을 다루기 위해서는 생산부문에서부터 최종 소비 부문에 이르기까지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 부문들이 언급되어야 하나 이 연구에서는 생산 부문과 수출 부문에 초점을 두었다.

이 보고서는 모두 4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뉴질랜드의 농업의 특징과, 농산물 생산, 농산물 무역 등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뉴질랜드 원예산업의 발전 과정과, 과일, 채소, 화훼의 동향과 전망을 검토하였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뉴질랜드 원예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정리하였다.

제2장 뉴질랜드의 농업개황은 뉴질랜드 매시(Massey)대학의 알랜(Allan N.

Rae) 교수가 정리하였다. 뉴질랜드 원예산업의 현황과 동향은 기존 문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파악하였고, 품목별 전망은 뉴질랜드 농림부가 제시한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뉴질랜드 원예연구소(HortResearch), 원예시장, 원예농가의 현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였다.

제 2 장

뉴질랜드의 농업 개황

1. 뉴질랜드 농업의 특징

1.1. 자연 환경

뉴질랜드는 온화한 기후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거의 1년 내내 잔디가 자라고, 기후가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육류와 유제품을 위한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북쪽 지역에서는 아열대 식물을 재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평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곡물 위주의 경종농업은 규모의 경제면에서 국제경쟁력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

뉴질랜드 인구는 400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1인당 경지 면적 비율은 높은 편이다. 여기에 뉴질랜드의 온화한 기후는 농업 부문에 있어 강한 비교우위를 제공하고 있다. <표 2-1>은 주요국의 농업 부문 비교우위 지수이다. 인구 1,000명 당 농경지면적 비율을 볼 때 뉴질랜드는 호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한국,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이고,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현시비교우위 지수에서도 뉴질랜드의 지수가 그 밖의 국가에 비해 매우 높

다.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특정국의 특정 상품(농산물) 수출이 세계 특정 상품(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특정국 전체 상품수출이 세계 전체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것이다. 이는 측정하고자 하는 상품이 특정국가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다. 지수가 1보다 클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농산물일 경우 그 국가는 농업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교역 전문화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현시비교우위 지수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매우 강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올수록 경쟁력이 더 커지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한국은 농업 부문에서 비교열위에 있으며, 그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1.2. 정책 환경

뉴질랜드의 농업에 대한 지원은 196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국제수지 위기가 이어지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외화 획득을 위한 정책 기조하에 수출지향 농산물 증산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비료 등 투입재에 대한 보조, 신용확대, 세금공제, 수출인센티브 지급, 가격 안정제, 가격 지지제, 토지개발에 대한 양허, 그 토지에 대한 주식자본화 등이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라 생산자보조추정치(The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²는 1983년에 35%로

표 2-1. 농업 부문 비교우위 지수

	농경지 /인구(천명)	현시비교우위 지수		
		1970-75	1980-85	1990-95
뉴질랜드	5,161	4.35	4.99	5.30
한국	51	0.70	0.44	0.33
일본	42	0.20	0.13	0.09
호주	27,218	2.56	2.76	2.49
미국	1,712	1.22	1.48	1.18
캐나다	2,654	1.22	1.46	1.40

자료: NAPES database.

² PSE는 정부의 각종 농업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얻어지는 산출물의 가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절정에 이르렀고, 이는 EU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에 따라 1984년에 이르러서는 많은 경제적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정부의 재정 적자는 GDP의 9%에 다다랐고, 공적 지출의 15%에 이르는 공적 부채를 감당해야 했고, 대외 적자문제도 계속되었다. 과대평가된 환율, 과도한 통화량 증가 등은 통화정책을 약화시켰다. 뉴질랜드 달러의 대량 판매는 국가의 대외 준비금을 고갈시키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1984년 6월 임시선거에 의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다른 어떤 선진국도 시도하지 못했던 개혁 프로그램을 시도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 농업 분야로부터 야기되는 재정적자의 심각성, 수출에 있어서 농업 분야와 다른 경제 분야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농업보조 정책이 개혁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개혁은 농민들로부터 강하게 지지받지 못한 노동당에 의해 수행되었고, 농업 분야의 지원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당시 농민들은 상품에 따라 부족분 혹은 수출보조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던 최저가격지지제도(supplementary minimum prices: SMP)로부터 가장 두드러진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년에 걸쳐 사라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PSE가 3% 미만으로 떨어진 1990년대 초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PSE는 1%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표 2-2>.

표 2-2. OECD 국가의 생산자보조 추정치(전 상품)

단위: %

	1979-81 평균	1986-88 평균	1990-92 평균	1992-94 평균	1994	1996	1998	2000	2002
뉴질랜드	18	11	4	3	3	1	1	1	1
호주	8	9	11	10	10	6	7	5	5
캐나다	20	34	42	31	26	15	17	19	20
EU	36	40	47	48	49	39	39	34	36
미국	14	25	22	21	19	17	23	22	18
일본	60	61	68	74	75	63	62	60	59
OECD평균	29	38	42	42	42	33	34	32	31

자료: OECD.

개혁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에서 경쟁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 우유, 밀, 달걀, 감귤류, 사과 등을 포함한 각종 국내 마케팅보드가 해체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품목들의 유통 과정에 민간 부문 참여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시장과 해안지역³ 개혁 또한 유통 효율성과 생산성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다. 1989년의 새로운 입법은 그동안 전국 단위의 연합 형태로 해안 지역 노동력을 담당했던 기구를 폐지시키고, 고용주들에게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1989년과 1986년을 비교 했을 때, 해안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34%까지 떨어졌으나 노동자 한 명당 지불금은 45%까지 증가했다. 용적 톤으로 나타난 노동자당 생산성은 53%까지 증가하였다.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종전의 하역비용은 유제품의 경우 30%까지 감소하였고, 몇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50%까지 감소하였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노동시장 개혁 또한 농산물 유통경로와 가공비용 특히 노동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합의 의무 가입이 폐지되고, 임의 가입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에게 그들의 고용조건 협상에서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유연성이 크게 도입되었다. 육류 가공 분야의 경우, 두 거대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회사 혹은 공장단위의 교섭으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조합원 가입이 1993년까지 3분의 1로 감소하였고, 산업적 파업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거시적으로 볼 때, 1984년 새로운 정부의 초기 조치들은 뉴질랜드 달러의 20%평가절하, 재정과 외환시장 통제 철폐 즉 금리자유화와 변동환율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 보조가 없어지고, 관세는 점진적으로 낮아졌으며, 수입 통제는 해제되었다. 이 모든 것은 국제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었다. 그 후 조치로는 물가안정 추구를 위해 중앙은행의 자율성 확대, 0~2%의

³ 뉴질랜드 농산물 생산의 특성은 많은 농산물이 해안지역을 따라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노동력이 해안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물가 상승률 목표가 설정되었고(1989), 노동시장의 규제가 해제되었다(1991). 이처럼 공적 부문은 줄어들고 농업 부문을 포함해 정부의 상업적 활동들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었다. 오늘날 뉴질랜드 농업의 경우 정치적 보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살아남아 있다. 이러한 방법들에는 시장 가격의 변화에 대한 농가의 적절한 대응, 한계농지의 비사용, 사슴사육, 투입재 사용 수준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사업의 창출과 발전 그리고 증가된 생산성 등 농장수준에서의 다양화가 포함된다.

2. 뉴질랜드의 농산물 생산

뉴질랜드는 1960년대부터 만성적인 국제수지 문제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는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즉 전통적 목축업 생산품인 양모(wool), 육류, 유제품 생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원예 분야와 같은 비전통적인 수출 분야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한 다른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농가들은 1960년에서 1983년 사이 양과 소의 수를 50%까지 증가시켰으며, 원예작물 재배면적을 85%까지 늘렸다. 특히 양과 소 사육의 경우 그러한 증가는 생산보조를 통한 인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정부 보조가 없어지면서 양고기와 양모 생산은 급격히 반전되었다. 1984년에서 1990년까지 전체 양 수는 거의 20% 감소했다. 그러한 감소는 계속되었으며 2003년 뉴질랜드에서 사육되는 양의 수는 1955년의 양의 수와 같다.

양 사육자들은 그들의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여러 다른 사업을 전개하였다. 예전의 정부보조에 의해 생산에 이용되었던 많은 한계지는 휴경지로 남겨나 산림이 식재되었다. 그리고 일부 목초지는 쇠고기, 유제품, 원예 농산물 생산지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쇠고기 생산은 1985년 467천 톤에서 1995년에는 629천 톤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양고기의 경우는 1985년 705천 톤에서 10년

후인 1995년에는 533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양모 생산 또한 1986년 357천 톤에서 1996년 268천 톤으로 같은 10년에 걸쳐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 후에도 양모 생산은 계속 감소하였는데, 이는 양 사육업자들이 새끼 양고기 생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양고기 생산은 2003년 547천 톤에 이르러 다소 증가한 상태이다. 1984년까지 행해진 정부의 생산 보조의 대부분은 양 사육자들에게 돌아갔으며, 보조 철폐는 양고기 감소와 쇠고기, 유제품에 비해 양모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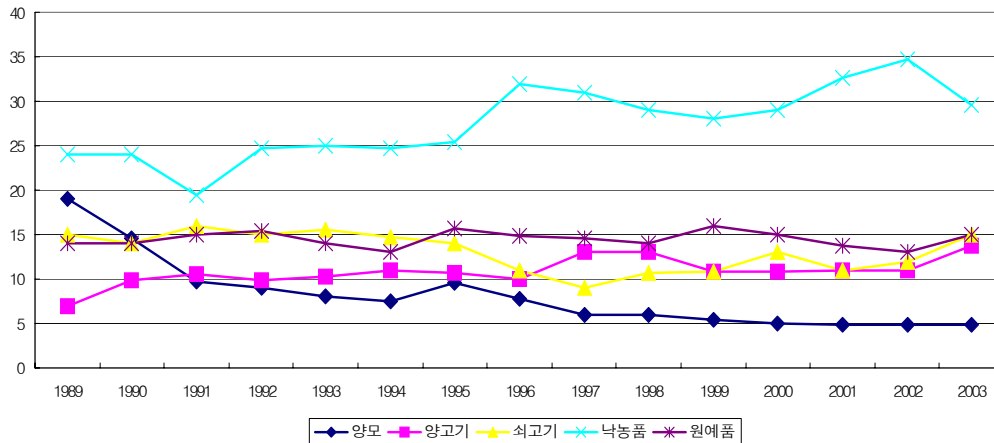
한편, 1995년 이후 실행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은 유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낙농가 수가 증가하게 되고, 종래의 비낙농지역에서도 낙농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체 우유 생산량은 1990년 7.6백만 톤에서 2003년에는 14.4백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농가들 또한 사슴과 염소 같은 새로운 가축 산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돌파구를 찾아나갔다. 농가가 정부의 보조철폐에 적응해 가던 1983년에서 1989년 사이, 사슴 사육 수는 20만 마리에서 80만 마리로 늘어났으며, 염소 수는 15만 마리에서 120만 마리로 증가하였다. 그 후 염소 산업은 줄어들었으나 사슴 산업은 계속 발전하여 2003년 170만 마리에 이르고 있다. 사슴산업에서의 주요 생산품은 주로 독일로 수출되는 사슴 고기와 한국으로 수출되는 녹용이다.

<그림 2-1>은 1989년 이후 뉴질랜드 농산물 총가치에 대한 주요 품목의 비중 변화이다.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양모의 비중이 1989년 19%에서 2003년에는 5%이하로 감소한 것과 낙농의 비중이 2003년 29%에 이를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쇠고기 비중은 같은 기간 그다지 변하지 않았으며 양고기는 약간 증가했다. 다만 양고기 변화 중 특징은 다 자란 양고기 대신 어린 양고기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원예산업 비중은 1989년 13%였으나 2003년에는 약 15%로 증가했다.

뉴질랜드의 농업 생산성은 지난 30년에 걸쳐 체증의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Forbes and Johnson(2001)과 Johnson(2002)은 2002년까지 농업 생산성 추세를 계측하였는데, 농업 부문 전체로 볼 때, 투입재 생산성은 정부 보조가 가장

그림 2-1. 농산물 주요 품목별 비중 변화



자료: New Zealan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ellington.

많았던 1976년부터 1984년까지는 연평균 1%씩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 보조 철폐의 조정기였던 1984년부터 1990년에는 연평균 2%로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0년부터 1997년 동안의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2.3%로 더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는 토지, 노동력, 자본의 비농업적 사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 이래 농산물 총생산을 계속 증가하게 만들었다.

자본 지출은 정부 보조를 포함한 가격지지 및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자율은 1984년 물가통제가 해제되면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따라 많은 농가들에 있어서 부채 상황이 농가지출의 주요 항목이 되었고 신규 투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높아진 이자율과 더불어 1984년 이후 정부 보조가 철회됨에 따라 자본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988년 농장에 대한 실질 투자는 1984년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신규투자의 수준이 감가상각을 상쇄하기에 불충분하였고, 농업 총자본스톡도 감소하였다.

Davison(1996)은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0년에 걸쳐 양과 소를 사육하는 목초지 면적이 1.93백만 ha가 감소(16% 감소)한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가운데 56%인 1.08백만 ha는 낙농, 포도 과수원, 다른 원예작물 재배지 그리고 도

시풍의 생활양식 부지로 전환되었다. 나머지 0.85백만 ha는 산림 혹은 한계토지로 유희화되었다. 1984년과 2002년 사이에 목초지, 곡물 및 원예작물 재배의 총면적은 14.5백만 ha에서 12.2백만 ha로 감소했다.

노동력은 뉴질랜드 농업에 있어 주요한 투입재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자본과 노동 대체의 결과로 노동력의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다. <표 2-3>은 1986년부터 2기간에 걸친 농업노동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86년부터 1991년은 정부 보조가 철회됨에 따른 적응기간이고, 후반부 1991년부터 2001년은 보조가 없는 환경이다. 후반부 동안 총 상근환산(full time equivalent: FTE) 노동자는 117천 명에서 115천 명으로 1.7% 감소하였고, 전반부는 133천 명에서 117천 명으로 12.0% 감소하였다. 후반부의 1.7%가 기술발전에 의한 자연적인 감소라면 전반부의 경우 12.0%의 감소분 중 10.3%(12.0-1.7)는 개혁 정책에 의한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1986년의 농장 노동력(FTEs)은 직접 일하는 농장소유자 71천 명(53%), 임금노동자 53천 명(40%) 그리고 기타 보수가 없는 가족노동력 8천 명으로 구성되었다. 개혁 정책은 농장 소유자들과 임금노동자들 모

표 2-3. 농업노동력 변화

	단위	1986	1991	2001
농업노동자수	1,000명	144	128	129
상근환산 농업노동자 수	1,000명	133	117	115
그 중 여성노동력 비율	%	29	30	33
상근환산 농장소유자 수	1,000명	71	64	52
그 중 여성노동력 비율	%	23	25	29
상근환산 고용노동자 수	1,000명	53	45	50
그 중 여성노동력 비율	%	31	30	31
상근환산 무급가족노동자 수	1,000명	8	7	12
그 중 여성노동력 비율	%	72	63	55
시간제 고용노동력 비율	%	20	21	23
농장소유자 평균연령	세	43	45	49
농업노동자 평균연령	세	39	41	44

자료: Rae, Nixon and Lattimore(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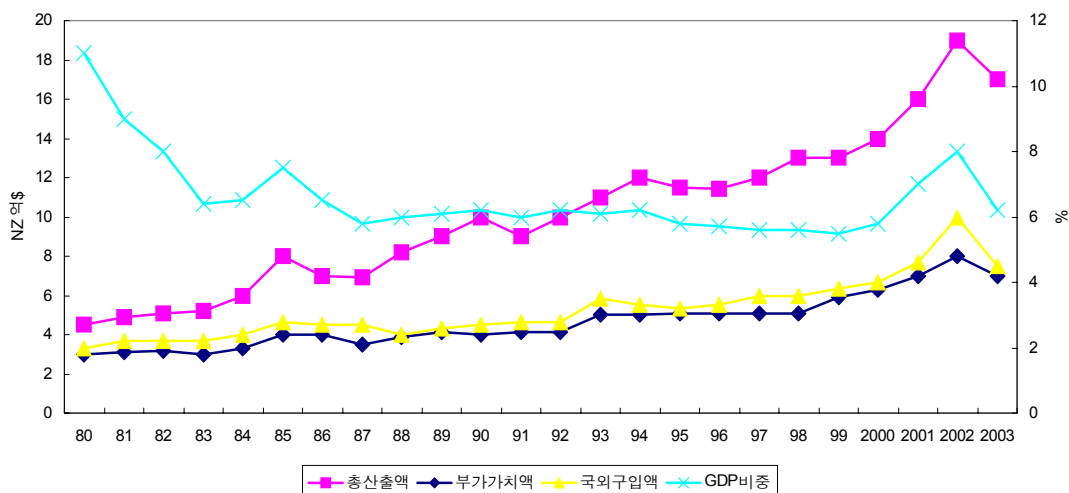
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나 임금노동자들에게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남겼다. 1991년에는 노동인력의 55%는 농장소유 농부들 그리고 38%는 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즉 농장일이 농장소유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농장 당 임금노동자 수가 높은 비율로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1991년 이후에는 농장소유주 노동력은 계속 감소한 반면, 임금노동자 수는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특히 농장이 소규모화되고는 있으나 집약적 영농 형태인 원예업과 포도농사는 시간제 고용노동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시간제 임금착유자를 고용하는 낙농가의 농장규모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시간제 고용노동자는 1986년에 전체 임금노동자의 20%를 차지했으나 2001년에는 23%로 증가했다. 농장소유자의 경우 농업노동력에서 여성의 기여도는 1986년 23%에서 2001년 29%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여성의 기여도는 전 기간 약 30%이나 무급 가족노동력의 범주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농업 부문 명목 GDP는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그림 2-2>. 특히 2000-2002년에는 농업총생산의 비약적 증가와 유제품과 육류의 수출 가격 호조로 추세선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총GDP에 대한 농업 부문 GDP의 추세가 그동안 하향추세에서 2000대 들어 반전되었고, 2002년에는 총GDP의 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수준인 6%로 다시 하락하였다. 이것은 농업이 처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농업 부문은 타 경제 분야에 비해 비교우위 면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경우도 농산물 산출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고, 이는 단지 뉴질랜드만의 경우는 아니다.

3. 뉴질랜드의 농산물 무역

뉴질랜드의 농업이 상업화되고 특히 냉동 선박운송의 발전에 따라 영국은 육류, 유제품, 과일, 양모 등 다양한 뉴질랜드 수출 품목의 가장 중요한 수출

그림 2-2. 농업 부문의 GDP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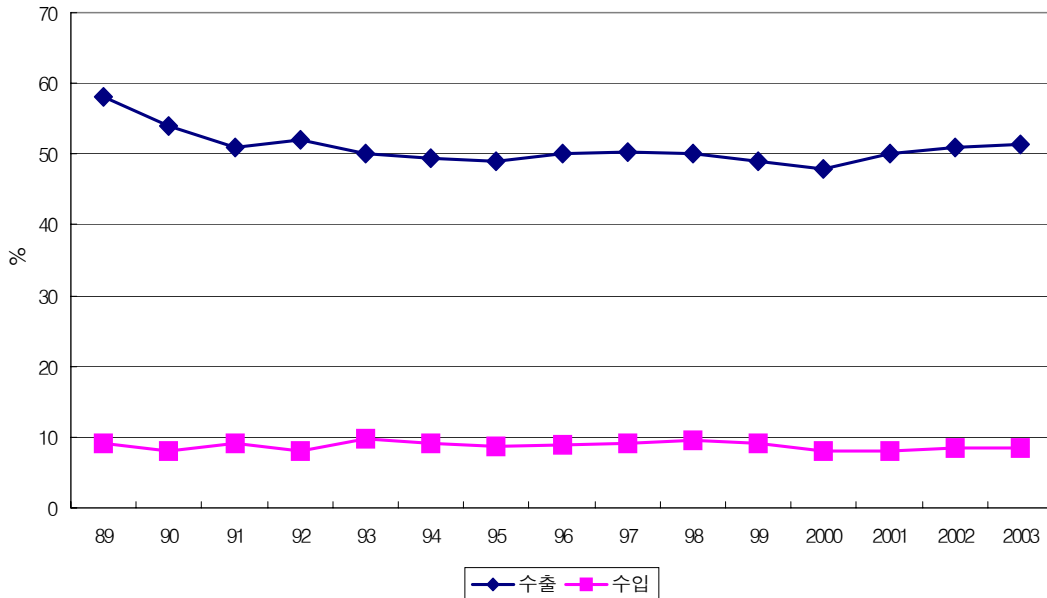


자료: New Zealan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대상국이였다. 이러한 품목들은 영연방우대(Commonwealth Preference)시책에 의해 영국에 면세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영국이 1973년 유럽 공동체(EC) 회원국이 되면서 급격히 변화되었다. 뉴질랜드의 버터, 치즈, 양고기 수출에 대해 쿼터제가 도입되고, 그 중 일부는 재협상이 빈번히 요구되었으며 협상 결과 수출품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지곤 했다. 이에 뉴질랜드 수출업자들은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가들이 1970년대부터 빠르게 소득이 증가하고 식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은 급속한 시장 다양화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의 농산물과 식품 수출은 뉴질랜드 전체 상품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 최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비교우위를 반영한 것이다. 단지 400만 인구밖에 되지 않는 국내 시장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몇 농산물은 80~90%가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수출은 총수출에서의 비중이 1989년 57%에서 1995년 48%로 감소했으나 그 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52%에 이르렀다<그림 2-3>.

그림 2-3. 총 교역에서 농산물(식품 포함) 수출입 비중



자료: UN Comtrad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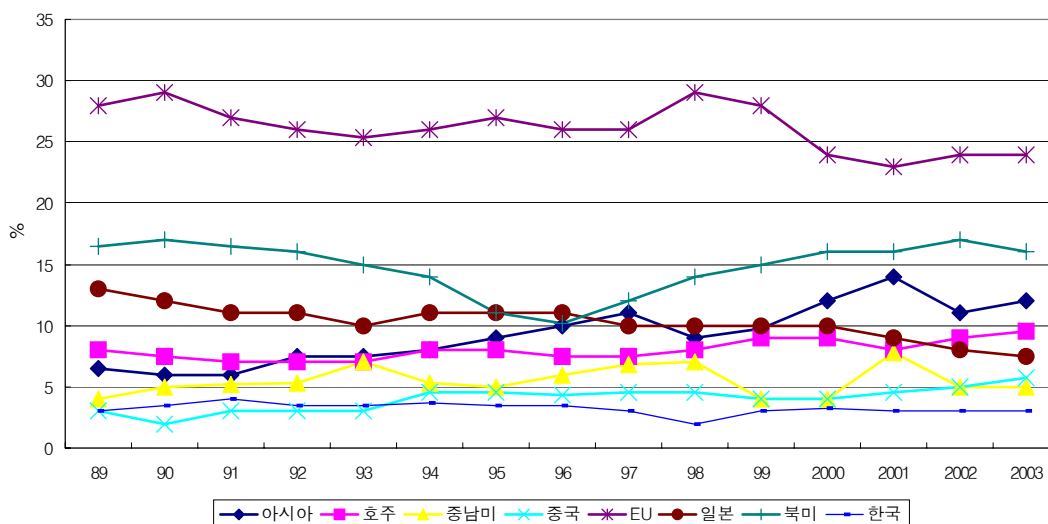
품목별로 볼 때, 유제품 수출은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의 비중이 1989-1991년 24%에서 2001-2003년에는 36%로 증가했다<표 2-4>.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표 2-4.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출과 수입 현황

	품목별 수출비중			품목별 수입비중	
	1989-1991	2001-2003		1989-1991	2001-2003
유제품(04)	24.2	35.8	가공과일, 채소(20,21)	14.1	20.2
육류(02)	29.2	28.3	음료(22)	12.2	13.6
원예품(06-08)	11.8	10.3	곡물류(10,19)	12.7	13.2
가공식품(15-21)	4.6	8.2	원예품(06-08)	14.1	11.5
양모(51)	15.7	6.2	설탕(17)	10.1	7.6
피혁, 가죽(41,42)	7.4	3.7	피혁, 가죽(41,42)	7.0	6.2
음료(22)	0.7	2.7	지방, 오일(15)	5.1	5.4
기타	6.4	4.8	기타	24.7	22.3
계	100	100	계	100	100

자료: UN Comtrade database.

그림 2-4. 농산물(식품 포함)의 지역별 수출 비중



자료: UN Comtrade database.

의 비중이 늘어난 품목은 음료(주로 포도주)와 가공식품이었다. 뉴질랜드가 수입하는 농산물 및 식품은 총 상품 수입의 10% 이하이다. 주된 수입 품목은 신선 및 가공 열대 농산물, 일부 곡물과 같은 국내 생산 시 비교우위가 없는 품목들이다.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가공 과일과 채소의 비율은 1989-1991년에 평균 14%였으나 2001-2003년에는 2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뉴질랜드는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그림 2-4>는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출지역 또는 국가를 나타낸 것이다.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액의 약 40%를 EU 15개국과 북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EU지역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북미 지역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으로의 유제품 수출은 감소하는 데 비해 북미 지역으로의 육류 수출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 추세인 데 비해 ASEAN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미국이 여전히 가장 큰 수출 시장이기는 하나 일본과 한국 또한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되고 있다. 양고기의 경우는 유럽연합이 주요 시장이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다. 유제품의 경우는 여러 나라에 널리 수출 되고

있으나, 버터와 치즈는 선진국이 주요 시장이다(치즈는 일본, 미국, 호주, 유럽연합, 버터는 유럽연합). 분유의 주요 시장은 동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인데, 최근에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신선 과일과 야채의 주요 수출 시장은 일본, 유럽, 호주, 미국 등이고 가축과 피혁의 주요 수출 시장은 이탈리아, 한국, 중국 등이다.

제 3 장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동향과 전망

1. 원예산업 개요

1.1. 세계 원예농산물 시장에서 뉴질랜드의 위치

2003년 세계 과일 생산량은 441백만 톤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바나나와 오렌지가 각각 1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포도 14.3%, 사과 13.6%의 순이다. 키위의 경우 세계 과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극히 미미한 품목이다. 뉴질랜드가 252천 톤을 생산하여 세계 키위 생산량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채소류 생산량은 1,545백만 톤으로 과일보다 3.5배 많다. 채소류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감자가 2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카사바 12%, 고구마 9%의 순이다<표 3-1>.

세계에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자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생산량의 일부분이 교역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다양한 원예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다. 그러나 키위는 세계 교역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다. 기타 주요 품목의 수출 비중을 보면 단옥수수가 약 9%, 사과와 양파가 각각 4~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살구, 냉동감자, 아보카도, 냉동

채소 등은 각각 세계 교역량의 1%를 약간 초과하고 있다. 화훼류의 경우 세계적 생산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80억 달러 정도가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전통적인 화훼 강국이 화훼교역을 주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아직 화훼 강국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는 않으나 난 수출이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구근류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는 키위를 제외하면 세계 원예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교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 시장규모

2003년 뉴질랜드의 원예농산물 시장규모는 총 45억 NZ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3-2>. 이 중 내수가 25억 NZ달러, 수출이 20억 NZ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과일류(신선, 가공) 수출이 11억 NZ달러, 과일류 국내 소비 7억 NZ달러, 채소류(신선 가공) 국내 소비 10억 NZ달러, 채소류 수출 5억 NZ달러 등이다.

표 3-1. 세계 과일과 채소의 품목별 구성비, 2003

단위: %

과일	바나나	사과	포도	키위	오렌지	감귤류	열대 과일	딸기류	기타계절과일		총생산량 (백만톤)
		14.9	13.6	14.3	0.3	14.9	8.9	21.2	1.1	10.8	
채소	감자	카사바	양파 마늘	멜론	토마토	콩류	근채류	고구마	양배추	기타 신선	총생산량 (백만톤)
		20	12	4	7	7	5	4	9	5	

자료: HortResearch, *NewZealand Horticulture facts&figures 2003, 2004.*

표 3-2. 뉴질랜드의 원예농산물 시장규모, 2003

단위: 10억 NZ\$

수출			국내소비			계
과일류	채소류	기타	과일류	채소류	기타	
1.1	0.5	0.4	0.7	1.0	0.8	4.5

자료: HortResearch, *NewZealand Horticulture facts&figures 2003, 2004.*

뉴질랜드의 원예산업은 주로 키위, 펄프フルーツ(pipfruit), 포도주, 신선채소, 가공채소의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 아보카도, 올리브, 딸기류, 여름 과일 같은 작물 등은 현재도 수출이 되고 있으나 틈새시장을 겨냥한 발전 전략과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원예농산물은 낙농이나 육류 등과는 다르게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시장에 공급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가공을 최소화함으로써 농산물 중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포도주, 가공채소, 딸기류 농축식품 등은 고도의 가공과 첨가를 통한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

1.3. 원예작물의 도입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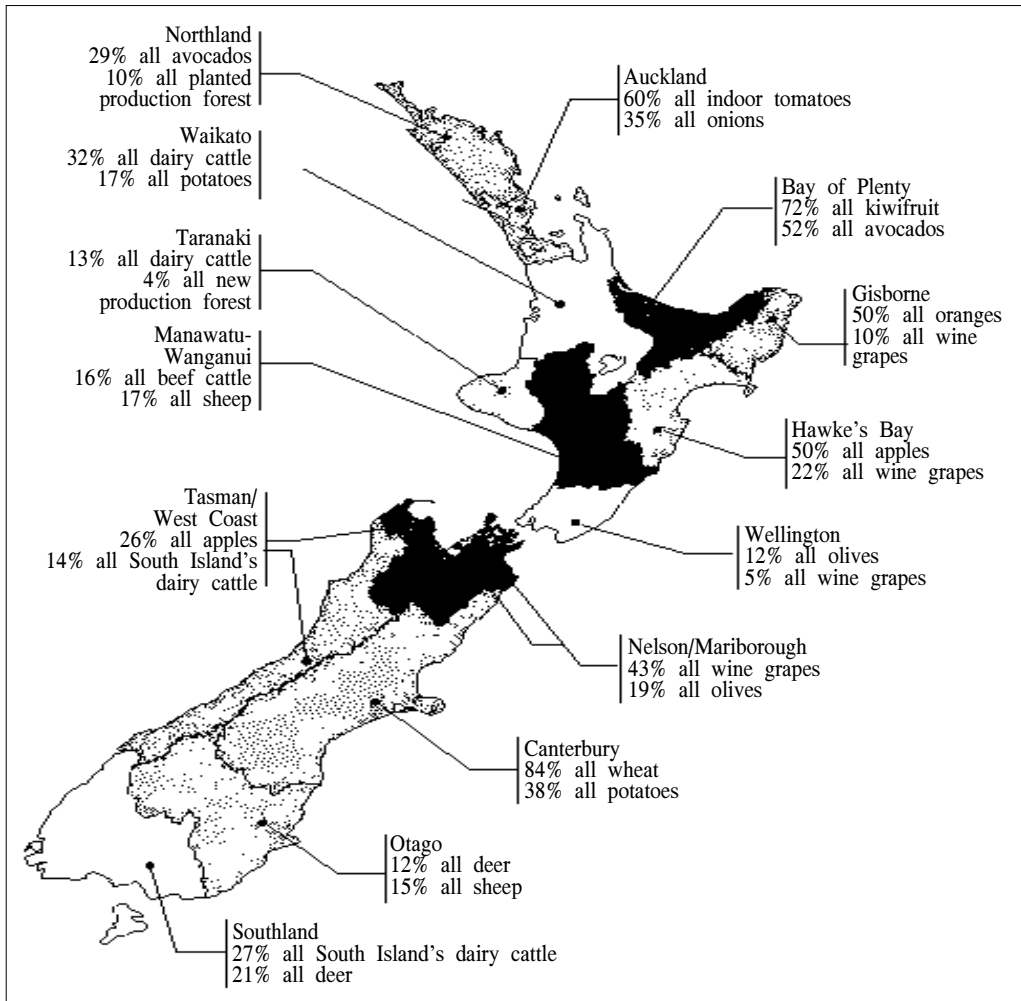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원예작물은 유럽 이주민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면서 도입되었다. 1818년 감귤류가 기후가 온난한 북섬의 케리케리(Kerikeri)에 식재된 것을 계기로 이듬해는 사과, 배, 포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원예작물은 유럽 이주민들의 확산과 더불어 뉴질랜드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865년경 부터는 근대적인 과수원이 등장하게 되었고, Nelson, Central Otago 같은 전문적인 원예지역이 나타나게 되었다. 채소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 주변에서 재배되었다<그림 3-1>.

뉴질랜드의 원예작물은 재배 초기부터 수출이 시도 되었는데, 감자의 경우 1830년에 호주의 시드니로 처음 수출되었다. 초창기 무역대상국의 대부분은 호주와 태평양 섬국가 중 일부였다. 1899년에 영국을 대상으로 사과와 배의 시험수출이 이루어진 후 매년 그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위도는 남위 35도에서 남위 47까지 그 범위가 넓어서 원예작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뉴질랜드의 원예 발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키위품종의 개발이다. 키위의 원산지는 중국이나 뉴질랜드에서 자국화에 성공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후 원예작물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50년 이래 원예작물의 생산규모가 커지고 생산물이 다양화되는 등 원예 생산에서 큰 진전이 지속되었다. 원예생산의 확대는 원예작물 수출에서 괄목

그림 3-1. 농축임산물 지역별 생산 분포



자료: <http://www.maf.govt.nz>

할 만한 증가로 이어졌다. 1949년 1백만 NZ달러에 불과하였던 원예작물 수출이 1985년에 5억 NZ달러에 육박하게 되었고 2003년에는 20억 NZ달러를 상회하였다.

1.4. 원예농산물 생산

2002년 뉴질랜드의 원예작물 재배 면적은 전체 농경지 면적의 0.7%인 109,577ha이다. 농경지의 대부분을 초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 비율은

낮다. 그러나 원예농가 수는 전체농가 70,335호의 19.9%인 14,000호에 이른다. 원예농가의 50% 이상이 과일을 재배하고 있으며, 채소농가가 약 13%, 육묘를 포함한 화훼농가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표 3-3>. 단일작물로는 키위농가가 전체의 15.7%인 2,200농가에 이른다.

작물별 재배면적 또한 과일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채소류가 30%를 차지하고 있어 채소농가의 호당 재배면적이 큰 편이다. 이에 비해 화훼류와 육묘농가의 경우는 시설 이용도가 높아 호당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원예농산물 면적은 1990년대 초 약 90,000ha에서 2000년대 들어 110,000ha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원예작물 생산이 가능한 경지규모가 1,400,000ha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향후 원예작물 재배면적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뉴질랜드의 원예농산물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과일이다. 뉴질랜드는 자연적 조건에 의해 아열대과일에서부터 온대과일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표 3-3. 원예작물 재배규모, 2002

		농가수(호)	면적(ha)
뉴질랜드 전체		70,355	15,640,348
원예분야	육묘, 묘목	1,200 (8.6)	3,834 (3.5)
	화훼류	920 (6.6)	1,440 (1.3)
	채소류	1,800(12.8)	33,262(30.4)
	포도	1,200 (8.6)	17,586(16.1)
	사과, 배	1,200 (8.6)	15,675(14.3)
	살구, 복숭아 등 Stone fruit	300 (2.1)	2,017 (1.8)
	키위	2,200(15.7)	13,673(12.5)
	감귤류	390 (2.8)	1,763 (1.6)
	베리프рут	260 (1.9)	2,460 (2.2)
	기타과일	1,800(12.8)	6,284 (5.7)
	기타	2,730(19.5)	11,583(10.6)
원예계		14,000(100)	109,577(100)

주: ()는 구성비임.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Agriculture Statistics 2002, 2004.*

표 3-4. 과일 품목별 재배 현황

단위: ha

	1993	2000	2002	주 산 지
감귤류(Citrus)				
-그리이프프루트	156	117	82	Bay of Plenty
-레몬	283	339	364	Northland
-만다린	533	946	914	Northland
-오렌지	760	597	575	Gisborne, Northland
-탕겔로	357	167	163	Bay of Plenty
씨과일류(Pipfruit)				
-사과	12,937	14,114	12,799	Hawke's Bay
-배	1,068	958	952	Hawke's Bay, Tasman
-나시(아시아배)	484	185	119	Bay of Plenty, Auckland
핵과일류(Stonefruit)				
-살구	804	759	636	Otago
-벡타린	845	618	528	Otago, Hawke's Bay
-복숭아	869	725	808	Hawke's Bay
-자두	303	408	394	Hawke's Bay
-체리	273	535	550	Otago, Marlborough
딸기류(Berryfruit)				
-Blackcurrant	795	834	1,308	Canterbury
-Blueberry	340	348	430	Waikato
-Boysenberry	223	263	239	Tasman
-Raspberry	224	254	302	Canterbury
-딸기	247	384	311	Auckland
아열대과일(Subtropicals)				
-Avocado	1,260	2,646	3,106	Bay of Plenty, Northland
-Feijoa	226	217	198	Auckland
-키위	14,099	12,184	11,964	Bay of Plenty
-Tamarillo	325	297	270	Northland, Bay of Plenty
-Passionfruit	68	66	70	Bay of Plenty
-포도	5,663	12,665	17,300	Marlborough, Gisborne Hawke's Bay
감	400	384	282	Auckland

자료: Statistics NZ, *Agriculture Statistics 2002, 2004.*

매우 다양하다. 2003년 기준으로 통계에 잡히는 것만 30품목이 넘는다. 다양한 과일 가운데 사과, 키위, 포도 등이 전통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이 뉴질랜드의 과수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일 주산지는 대체로 북섬의 북쪽 지역과 동부 해안지역, 남섬의 해안지역 등 기후가 온난한 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표 3-4 및 그림 3-1 참조>.

1980년대 이후 뉴질랜드의 원예작물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원예기업들의 자본투자이다. 2002년 당시 원예 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107억 NZ달러를 초과하고 있다<표 3-5>.

투자유형은 농장투자(on-farm investment)와 비농장투자(off-farm investment)로 구분된다. 원예기업들은 과수원, 온실, 건물, 장비 등 작물재배와 관련된 농장(on-farm) 분야에 56억 NZ달러를 투자하였다. 한편 포장, 가공, 수송 등 수확 후에 관련된 비농장(off-farm) 분야에 51억 NZ달러를 투자하였다. 농장투자와 비농장투자의 비율은 작물에 따라 다르다. 키위의 경우 비농장투자는 농장투자의 20%수준이다. 반면 포도주의 경우는 그 특성상 비농장투자액이 농장투자액의 300%수준이다. 원예기업들의 경영규모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비농장 분야에 진출한 원예기업들은 재배업자와 연계한 소규모의 포장시설(pack house)을 갖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재배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포장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새로운 재배업자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1.5. 원예농산물 수출

2003년 뉴질랜드의 원예농산물 수출은 뉴질랜드 전체 상품수출에서는 6.8%, 농림산물 수출에서는 9.3%를 차지하고 있다. 원예농산물 수출은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1980년 1억 NZ달러에 불과하던 원예농산물 수출은 2003년에는 20억 NZ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2003년 기준 품목별 구성비를 볼 때<표 3-6>, 단일 품목으로는 키위가 전체 원예농산물 수출의 약 27%인 539백만 NZ달러, 사과가 20%인 392백만 NZ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포도주가 14%, 신선채소 및 가공채소가 각각

표 3-5. 원예산업 작물별 투자현황, 2002

		투자액(NZ\$백만)		
		농장분야	비농장분야	계
과일류	사과, 배	576	576	1,152
	포도주용 포도	868	2,604	3,472
	키위	2,512	502	3,014
	Summerfruit	86	86	172
	아보카도	93	93	186
	감귤류	63	63	126
	Berryfruit	83	83	166
	Nuts	55	55	110
	올리브	78	78	156
	아열대 과일	25	25	50
	기타	9	9	18
		계	4,448	4,174
채소류	감자	101	151	252
	콩, 완두콩	87	173	260
	양파	52	52	104
	호박	62	62	124
	단옥수수	61	122	183
	브로콜리, 양배추, 컬리플라워	36	36	72
	당근	17	18	35
	아스파라거스	19	38	57
	상추	12	18	30
	기타	54	81	135
		계	501	751
시 설	유리 온실 등 첨단시설	398	119	517
	비닐온실 등 중저위시설	296	89	385
합계		5,643	5,133	10,776

자료: Statistics NZ *Agricultural Production Census-2002*. MAF Horticulture Monitoring Report 2003.

12%를 차지하고 있다. 종자를 포함한 화훼류는 1억 NZ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다.

뉴질랜드는 과일, 채소, 화훼 등 원예작물을 1990년에 83개국에 수출하였으나 2003년에는 105개국에 수출하고 있을 정도로 수출 시장 확대에도 주력하

표 3-6. 원예 주요 품목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NZ\$(%)

	1975	1985	1995	2000	2003
신선과일	23.0	308.5	868.9	962.6	1,017.1(50.9)
-사과	19.3	108.2	482.1	404.5	391.8(19.6)
-키위	2.9	171.9	320.8	462.0	539.0(27.0)
-기타	0.8	28.4	66.0	96.1	86.3(4.3)
가공과일	1.8	49.9	89.1	72.3	75.9(3.8)
-주스과일	0.1	9.6	34.6	24.7	26.3(1.3)
-기타	1.7	40.3	54.5	47.6	49.6(2.5)
신선채소	3.1	43.9	194.2	213.3	248.9(12.4)
-양파	1.2	17.7	92.6	78.6	100.5(5.0)
-호박	-	14.6	57.7	60.3	67.5(3.4)
-기타	1.9	11.6	43.9	74.4	80.9(4.0)
가공채소	4.7	57.0	151.1	174.4	249.6(12.5)
-완두(냉동)	1.5	22.0	34.0	40.6	38.7(1.9)
-감자(냉동)	-	-	-	17.9	55.0(2.8)
-옥수수(냉동, 건조)	0.8	9.5	25.1	39.3	50.3(2.5)
-채소혼합(냉동)	-	4.6	25.6	29.1	46.7(2.3)
-기타	2.4	20.9	66.4	47.5	58.9(3.0)
포도주	0.1	3.0	42.0	169.8	282.8(14.1)
화훼류	0.2	7.6	49.7	46.2	39.4(2.0)
종자, 식물, 균엽	0.6	11.3	17.6	37.3	63.2(3.2)
기타원예작물	-	-	24.1	22.8	23.4(1.2)
계	33.5	481.2	1,436.7	1,698.8	2,000.3(100)
상품수출에서 비중	2.0	4.4	7.0	6.5	6.8

주: ()는 구성비임.

자료: HortResearch, *NewZealand Horticulture facts&figures 2003, 2004.*

고 있다. 2003년에 1백만 NZ달러 이상을 수출한 국가는 41개국에 이르며 이중 21개국에는 1천만 NZ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EU, 일본, 미국과 호주 등이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 시장이다. 특히 일본과 호주에는 80개 품목 이상의 원예농산물이 수출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영국에 수출되는 원예농산물 수출액은 뉴질랜드 총수출액의 10%를 초과하고 있다. 화훼의 경우 59% 이상이 일본으로, 포도주는 40% 이상이 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2. 사과산업의 동향과 전망

2.1. 사과 생산

세계적으로 사과 생산 강국은 중국, 미국, 칠레,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다. 뉴질랜드의 사과 생산은 전 세계생산의 1%에 불과하지만 수출은 전 세계 수출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는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브라질과는 생산시기가 비슷해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사과산업은 범세계적인 경쟁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신품종 도입과 품질 향상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Royal Gala, Braeburn, Pacific Series, SciFresh 같은 새로운 품종이 사과산업을 주도하고 있

표 3-7. 사과 생산 현황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사과생산량	1,000톤	529	547	620	486	531*	500
신선사과 수출량	1,000톤	292	309	330	280	315	322
재배면적	ha	14,967*	14,541*	14,114	14,200*	12,799	12,010*
단위면적당 생산량	톤/ha	35.3	37.6	43.9	34.2	41.5	41.6
재배 농가 수	호	1,500	1,500	1,488	1,200*	1,000*	900
포장센터	개	183	150	130	125	125	125

주: *는 추정치임.

자료: HortResearch, *NewZealand Horticulture facts&figures 2003, 2004.*

다. 현재 이들 품종이 뉴질랜드 전체 사과생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반구에 있는 주요 경쟁국들은 아직도 전통적 품종인 Red Delicious, Granny Smith, Golden Delicious의 비중이 높다. 뉴질랜드의 사과 경쟁력은 수출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 즉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에서 뉴질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괄목할만하게 높아지고 있다.

2003년 현재 사과 생산량은 50만 톤에 이르며 이중 64.4%가 신선 상태로 수출되고 있다<표 3-7>. 사과 재배면적 및 재배 농가 수는 1990년대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단위면적 당 생산량은 2001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소형다수확 품종의 재배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2. 사과 수출

2002/03시즌 뉴질랜드의 사과 수출은 17.9백만 상자(carton)⁴로 생산은 전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수출은 증가하였다. 이는 뒤에서 설명할 사과와 배 수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수출품종은 Royal Gala와 Braeburn이 각각 전체 수출액에서 39%, 33%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 수출 비중은 영국 24%, 영국을 제외한 EU 39%, 북아메리카 15%, 아시아 및 기타지역 22% 등이다<표 3-8>.

표 3-8. 사과 수출 품종과 수출 지역, 2003

					단위: %
수출품종	Royal Gala	Braeburn	Granny Smith	기타	계
	39	33	2	26	100
수출지역	영국	EU	미국	아시아, 기타	계
	24	39	15	22	100

주: EU국가 중에는 네덜란드(9%), 독일(9%)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대만(5%), 말레이시아(3%), 홍콩(3%), 싱가포르(3%) 등이 주요 시장임.

자료: MAF.,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2003, 2004.*

⁴ 1상자(carton)는 18kg을 기준으로 한다.

10년 전 뉴질랜드의 사과 수출은 약 12백만 상자였으나 품종교배에 의해 Royal Gala와 Braeburn이 등장하면서 수출도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Royal Gala와 Braeburn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 30%에 이른다. 반면 Red Delicious와 같은 품종은 시장점유율이 1993/94시즌 15%에서 현재는 1%이하일 정도로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Cox's Orange 품종 또한 지난 10년간 시장 점유율이 7%에서 3%로 감소하였다.

수출되는 사과의 품종을 가장 평균한 2002/03시즌 수출 단가(FOB기준)는 전기에 비해 5% 낮은 상자당 22.70 NZ달러이다. 여기서 포장비, 저온저장비 등을 공제한 생산자 평균 수출 단가는 상자 당 12.60 NZ달러로 전기에 비해 12%낮다. 이는 뉴질랜드달러의 가치가 높아졌고, 소형사과인 Royal Gala의 수출이 늘어나 포장비가 더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사과, 배 생산 농가의 요구에 의해 2001년 사과, 배 수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다. 즉 종전에는 ENZA(the New Zealand Apple and Pear Marketing Board)가 사과와 배 수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규제철폐 후에는 누구라도 사과와 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출업자가 출현하게 되어 현재 97개 회사가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업자의 대부분은 소규모이고, 연간 100,000상자 이상 수출하는 회사는 35개 정도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수출업자들은 생산 농가 및 포장업자와 계열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출량의 95%(2003년)를 차지하고 있다.

2.3. 향후 전망

세계 사과시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존도가 높은 뉴질랜드의 사과산업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사과시장에서 첫 번째 변화는 사과 공급이 계속 증가하는 점이다. 1990년대 동안 세계 사과공급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였다.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주요 사과 생산국이 재배면적을 다소 줄였기 때문에 사과생산이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유목과수가 성목이 되고 특히 중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의 사과생산은 현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다. 두 번째 변화는 사과 소비가 감소하는 점이다. 사과와 경쟁 관계에 있는 과일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사과 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1인당 사과 소비는 지난 10년간 20% 감소하였다. 세 번째 변화는 소매 단계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소매업자나 소비자들은 사과의 포장이나 공급운영 면에서 공급자의 비용부담에 의한 최신의 기술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대형 소매업자들은 다수의 공급업자를 상대하기보다는 연중 공급이 가능한 공급업자와 일괄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2002-2003년 사과의 세계적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사과산업의 한계이윤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뉴질랜드 사과수출의 주력 신제품인 Gala, Royal Gala, Braeburn의 세계적 생산은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ala, Royal Gala는 2010년까지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동안 누렸던 이러한 신제품의 프리미엄이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저장기술의 발달은 북반구의 비생산시기에 남반구 사과가 더 이상 유일한 공급원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저장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과 저장수명이 길어지고 이는 북반구의 사과가 남반구 사과 판매시기를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장기술의 발달이 뉴질랜드 사과의 저장수명을 연장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하는 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뉴질랜드 사과산업은 기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사과수출 규제의 철폐에 따라 뉴질랜드 사과의 수출등급 기준 완화, 수출업자의 증가, Royal Gala와 Braeburn 품종의 세계적인 생산 증가 등이 뉴질랜드 사과산업 발전에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 반면, 뉴질랜드산 Royal Gala, Braeburn 등 신제품이 수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기희이기도 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들 신제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뉴질랜드 사과산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한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품종 개발과 수출전략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포도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3.1. 포도주 생산

뉴질랜드 포도주는 지난 10년 동안 품질과 소비자 인지도 면에서 괄목할만 하게 성장하여 이제 향이 강렬한 세계적인 포도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400개 이상의 포도주 제조업체가 있고, 신규 포도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 제조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포도주산업은 세계 포도주 수출의 1%만을 담당할 정도로 아직은 세계적 방향에서 보면 큰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고품질 포도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해서 세계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다. 즉 이러한 고가의 차별화된 틈새시장에 뉴질랜드 포도주가 잘 통용되고 있다.

2003년 현재 포도주용 포도재배 농가는 634호에 이르고, 포도 생산량은 74,822톤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약 2배가 증가하였다.⁵ 뉴질랜드는 다양한 포도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나 포도주산업은 주요 6개 품종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3년의 품종별 생산비중을 보면 Sauvignon Blanc이 전체의 38%로 가장 높고, 다음이 Chardonnay 21%, Pinot Noir 12%순이다<표 3-9>.

2003년 시즌의 계약 재배된 포도의 생산자 평균가격은 톤당 1,900 NZ달러로 전년의 1,600 NZ달러에 비해 18%가 인상되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전년의 냉해 때문에 국내 공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3.2. 포도주 수출

2003년 뉴질랜드의 포도주 수출은 27.4백만 리터로 전년에 비해 18%가 증가하였다. 수출액(FOB기준)은 283백만 NZ달러로 수출 단가는 리터당 10.33 NZ달러이다. 수출 단가가 2002년도에 비해 약 1.5% 낮아졌는데, 이는 뉴질랜드 달러가 수입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포도주는 세계 70여 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데, 영국, 미국, 호주 등이 가장 큰 수출

⁵ 2003년의 경우 극심한 냉해로 인해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35% 감소하였다.

시장이다.

품종별로는 Sauvignon Blanc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Chardonnay는 10.2%, Pinot Noir은 4.8%를 차지하고 있다<표 3-10>.

표 3-9. 포도주용 포도 품종별 생산량과 구성비

단위: 톤, %

		1993		2003		03/93 (배)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백색종	Sauvignon Blanc	5,704	14.3	28,266	37.8	5.0
	Chardonnay	5,301	13.3	15,534	20.8	2.9
	Riesling	2,204	5.6	3,376	4.5	1.5
	Müller Thurgau	10,228	25.7	1,685	2.3	0.2
	Semillon	1,125	2.8	2,192	2.9	1.9
	Pinot Gris	-	-	1,214	1.6	-
	Other white vinifera	9,090	22.9	2,758	3.7	0.3
적색종	Cabernet Sauvignon	2,091	5.3	3,201	4.3	1.5
	Pinot Noir	1,880	4.7	9,402	12.5	5.0
	Merlot	711	1.8	4,957	6.6	7.0
	Other red vinifera	1,171	2.9	2,199	2.9	1.9
기 타		282	0.7	38	0.1	0.1
계		39,787	100	74,822	100	1.9

주: 생산량은 분쇄된 수량임.

자료: NZ Grape&Wine Industry Statistical Annual 2003.

표 3-10. 품종별 포도주 수출량

	수출량(백만 리터)	구성비(%)
Sauvignon Blanc	17.2	62.8
Chardonnay	2.8	10.2
Sparkling	1.6	5.8
Pinot Noir	1.3	4.8
Riesling	0.6	2.2
Merlot	0.2	0.7
기 타	3.7	13.5
계	27.4	100

MAF.,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2003, 2004.*

세계적으로 포도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포도주 시장에서 포도주 가격은 인하압력에 놓이게 되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사이에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한 남반구 일부 국가와 미국 등이 세계 포도주 시장에서 신흥국가로 출현하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세계 포도주 교역량은 연평균 5% 증가하였는데, 신흥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이 금액 기준으로 16%에 이르게 되었다.

신흥 포도주 생산국의 물량 증가는 포도주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게 되었다. 즉 신흥국의 포도주 수출업자들은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반면에 전통적 포도주 수출업자(주로 유럽 국가)들은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기 위해 공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도주의 생산물량은 증가하고 소비는 정체됨에 따라 포도주가격의 인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포도주의 수출가격은 최소한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 포도주가 3대 선도 수출 시장에서 고품질의 틈새시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3.3. 향후 전망

뉴질랜드의 포도주 생산을 위한 포도의 단위면적당(ha) 생산은 장기적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고품질 포도주 생산을 위해 다수확 저품질 품종을 생산하는 면적이 수량은 낮으나 고품질 품종을 생산하는 면적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도원의 관리 또한 수량보다는 품질을 극대화하는데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포도원의 면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간의 생산면적 증가(매년 약 1,000ha 증가)를 감안할 때, 2006/7의 생산면적은 20,000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의 포도주 생산은 생산면적의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포도주 생산량 증가는 포도주의 수출량 증가를 가능케 하여 2007년 포도주 수출량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인 60백만 리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세계 포도주 시장의 공급과잉과 소비정체로 뉴질랜드 생산자들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품질에 대한 평판과 높

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예상된다.

한편, 뉴질랜드 포도주의 수출가격(FOB)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뉴질랜드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영국이 뉴질랜드산 포도주의 유입이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상해서 대응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뉴질랜드와 다른 신흥 포도주 생산국과 경쟁이 영국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뉴질랜드 포도주의 수출가격을 낮추게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쟁은 뉴질랜드 수출업자에게 프리미엄급 시장에서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징후이다. 실제 호주 생산자들은 프리미엄급 포도주 시장을 겨냥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고 신흥 포도주수출국가의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칠레도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수출가격이 환율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통화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한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인하 압력은 계속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세계 포도주 시장은 포도주 공급 증가, 포도주 생산국 및 생산업체간의 경쟁심화, 저렴한 비용으로 프리미엄급 포도주지향 등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 포도주가 현재의 평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포도주업계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들의 장래는 마케팅, 브랜드 및 판촉 전략 등에 있어서 얼마만큼 성공적인 투자를 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4. 채소산업의 동향과 전망

4.1. 채소 생산

뉴질랜드는 신선 또는 가공 상태의 소비를 위해 50여종 이상의 채소가 재배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별 고유의 소비에 부응해서 아시아 채소의 종류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채소 생산은 소규모의 자가 생산이라는 특징이 있다. 많은 재배 농가들은 여러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작물별 재배 농가 수와 재배유형은 매년 다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토마토와 감자는 재배자의 20%가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대규모로 재배되는 작목이다.

2003년 채소류 재배면적은 약 53,000ha, 재배 농가는 3,700호를 상회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채소는 감자이다. 다음이 완두콩, 애호박, 단옥수수, 양파의 순이다. 이러한 작목은 국내시장의 소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주된 수출 품목이다<표 3-11>.

표 3-11. 채소류 재배 및 수출 현황, 2003

금액 단위: 백만 NZ\$

	재배자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국내소비 (2002)	수출(2003,FOB)	
					신선	가공
아스파라가스	201	2,015	5,300	6.5	9.1	7.2
콩	216	835	20,000	12.8	-	32.8
브로컬리, 양배추, 컬리플라워	277	3,746	40,000	80.3	1.3	-
가지	142	87	11,500	29.3	24.3	-
당근	139	1,831	65,000	41.3	15.5	0.5
박	244	283	1,770	41.3	-	-
마늘	32	268	1,427	6.5	1.5	-
고구마	76	985	17,500	33.8	-	-
상추	252	1,287	-	39.1	1.0	-
멜론	-	387	-	-	2.5	-
버섯	10	-	-	41.1	3.1	-
양파	150	5,488	210,000	25.0	100.5	-
완두콩	532	8,273	58,000	45.0	-	39.5
감자	321	10,611	470,000	300.0	12.4	57.0
호박	125	1,033	31,000	100.0	-	-
시금치/비트	103	396	4,000	13.4	-	-
애호박	181	6,560	95,000	9.8	67.5	-
단옥수수	326	6,384	96,500	28.0	2.1	51.4
토마토(온실)	390	167	40,000	107.7	5.0	-
토마토(노지)	80	609	50,000	5.0	-	2.0
혼합채소						46.7
건채소						6.4
기타		2,029			3.1	6.1
계	3,768	52,887	-	965.9	248.9	249.6

주1: 기타에는 셀러리, 토란, 파, 양(마), 부추, 순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주2: 재배자수는 작목에 따라 중복되어 있음.

자료: HortResearch, *New Zealand Horticulture facts&figures 2003, 2004.*

감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ha당 생산량이 10~20% 증가하였고, 양파는 10~15% 증가하였다. 재배 농가들은 이러한 생산성 증가가 새로운 품종도입과 농기계와 경영기법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애호박의 ha당 평균 수확량은 1998년 2.5톤에서 2002/3년에는 3.7톤으로 거의 50%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육성과 묘상의 개선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소비가 많은 온실토마토의 경우도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온실토마토 m²당 생산량은 1991년에 25kg에서 2002년에는 42kg으로 60%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배지 및 온실 개량, 온실 내 이산화탄소 강화, 환경제어장치 개선 등 기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실 해충의 생물학적 통제는 화학약품 사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4.2. 채소 수출

2003년 뉴질랜드의 채소 수출액은 약 5백만 NZ달러로 신선채소와 가공채소가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채소수출은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규모는 포도주 수출액을 초과하고 있다. 신선채소의 주요 수출 품목은 양파, 애호박, 가지, 당근, 아스파라거스 등이다. 단일 품목으로는 양파가 신선채소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뉴질랜드 채소수출을 견인하고 있고, 최근 가지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공으로 많이 수출되는 채소로는 감자, 단 옥수수, 완두콩, 혼합채소, 콩 등이다. 이러한 가공채소는 냉동, 통조림, 주스, 인공건조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채소수출 시장은 일본, 호주, 영국, 네덜란드, 피지 등 60여 개국에 이른다. 신선채소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은 일본으로 전체 수출액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채소는 전체 수출액의 41%가 호주로 수출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채소수출 시장은 매년 다양해지고 있는데, 채소 수출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수출 시장을 잘 견지하고 있다.

4.3. 향후 전망

뉴질랜드의 채소 생산은 그동안 수출보다는 국내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소 재배 농가들은 국내 유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신선채소의 경우 종전에는 경매회사를 통한 거래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소매점과 재배업자 간에 직거래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채소 재배면적은 시장 조건과 작물별 여건에 따라 계속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를 임차해서 채소를 재배하는 경우, 단기간 대규모 임차에 의한 생산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소산업은 지난 10년간 생산량이나 생산성 면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 식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생산 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통합방제,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수확전 처리, 등급 구분 및 저장기술의 개선 등이 적극 도입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더 나은 품질을 보장받기 위해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 수확 후 관리기술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의 채소수출은 과일 만큼 큰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소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출 시장 또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채소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유기농산물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한 채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양파 위주의 신선채소 수출에서 청정이미지를 살린 다양한 녹색 채소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시장 또한 일본, 호주 외에 아시아 지역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지역의 기호가 서구 식품 쪽으로 변하고 있어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5. 화훼산업의 동향과 전망

5.1. 화훼 생산

뉴질랜드에서 화훼산업은 과수나 채소산업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주택 구조가 대부분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장미, 국화 등 개화형 꽃이나 소형 식물로 정원을 장식하고 있다. 그만큼 꽃의 생활화가 대중화되어 있어 화훼산업의 저변은 넓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난과 구근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화훼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000여 농가가 절화, 분화, 구근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중 약 400 농가는 전업 화훼 생산자들이다. 뉴질랜드 화훼 생산의 특징은 전체 생산자의 80%가 화훼 외에 타 소득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족 단위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화훼 수출은 주로 전업 생산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소규모 생산자들은 비교적 열악한 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절화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기후가 생산량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나 꽃의 다양성 면에서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1998년에는 뉴질랜드화훼산업연합(NZ Flower Industry Federation: FloraFed)⁶이 설립되었는데, 설립 후 화훼 관련 종사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FloraFed를 중심으로 뉴질랜드 화훼산업이 틈새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의 국내 절화시장은 70백만 NZ달러로 추정된다. 국내 유통은 대부분 전문 소매점이나 슈퍼마켓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종전에는 화훼 전문업자(florist)의 취급비중이 높았다.

⁶ FloraFed는 화훼 관련 조직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화훼 재배업자를 주축으로 유통업자, 연구자, 교육자, 소매점들과 연계되어 있다. FloraFed는 전국 단위에서 회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식품소매점, 공방매점 등에서도 여러 품목을 혼합한 포장다발을 취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충동구매까지도 고려한 판매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화훼농가의 판매방식도 전통적 경매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판매점과 직거래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5.2. 화훼 수출

뉴질랜드의 화훼류(종자포함) 수출은 1990년 38.3백만 NZ달러에서 2003년에는 125.6 백만 NZ달러로 지난 10여 년 사이에 3.3배가 증가하였다<표 3-12>. 품목군 별 비중은 절화가 1990년대까지는 약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약간 감소하여 30~40%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수출절화가 세계 절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에 이른다.

뉴질랜드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 품목은 난, *Sandersonia*, *Zantedeschia* 등이었으나 최근 난의 수출은 다소 정체 내지 감소한 반면 *Zantedeschia*의 품종 중의 하나인 *Calla Lilies*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분화수출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수출액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 수출 시장에서 분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뉴질랜드의 분화수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의 화훼류 수출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 것은 구근류와 종자이다.⁷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절화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3년에는 절화 수출액을 상회하였다. 이끼류의 수출도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중요한 수출 품목 중의 하나이다.

현재 뉴질랜드는 수출하는 화훼의 약 70%가 일본 시장일 정도로 일본 편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 수출되는 주요 품목은 난(12백만 NZ달

⁷ 구근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농가의 총 부지는 평균 4ha 정도로 이중 노지 재배면적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비닐온실과 저온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재배품목은 *Calla*, *Canna*, *Eucomis*, *Agapanthus*, *Dierama* 등으로 생산량의 약 50%를 수출하고 있다. 재배 농가의 반응은 수출품의 경우 네덜란드와 비교해서 품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가격 면에서 다소 불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러), Zantesdeschia(4백만 NZ달러), Sandersonia(1백만 NZ달러) 등이다. 최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미국, 유럽,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이 시도되고 있고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3-12. 화훼류 수출 추이

금액 단위: 백만 NZ\$(%)

		1990	1995	2000	2002	2003
절 화	Alstroemeria	-	-	0.4	0.6	0.4
	국화	-	-	0.3	0.4	0.6
	백합류	-	1.5	1.9	1.0	0.9
	Nerines	-	-	0.6	0.5	0.5
	난(심비디움)	8.2	14.6	22.4	21.0	16.8
	작약	-	-	0.5	1.1	1.2
	Proteaceae	0.5	1.5	1.4	1.0	0.9
	Sandersonia	0.2	5.6	3.1	2.6	1.4
	Zantesdeschia	1.9	6.6	7.7	7.2	6.8
	기타	7.8	19.9	7.8	12.5	9.9
	소 계	18.6(48.4)	49.7(54.4)	46.1(43.4)	47.9(39.6)	39.4(31.4)
분 화	산식물	2.5	3.5	5.6	10.6	12.3
	군엽식물	0.7	0.2	0.6	1.0	0.4
	소 계	3.2(8.3)	3.7(4.1)	6.2(5.8)	11.6(9.6)	12.7(10.1)
종자, 구근	화훼종자	0.1	0.3	2.1	2.6	0.9
	채소종자	2.1	7.3	15.9	19.2	23.3
	관상수종자	-	-	1.6	1.6	1.8
	구근류	2.0	6.3	11.6	17.9	24.5
	소 계	4.2(10.9)	13.9(15.2)	31.2(29.3)	41.3(34.1)	50.5(40.2)
이 끼 류	11.0(28.7)	17.3(18.9)	15.3(14.4)	13.3(10.9)	14.5(11.5)	
호 프	1.4(3.7)	6.8(7.4)	7.5(7.1)	7.0(5.8)	8.5(6.8)	
	계	38.4(100)	91.4(100)	106.3(100)	121.1(100)	125.6(100)

주: ()내는 전체 수출액에 대한 품목군별 구성비임.

자료: HortResearch, *New Zealand Horticulture facts&figures 2003, 2004.*

5.3. 향후 전망

뉴질랜드는 온화한 기후, 강한 일조 조건, 깨끗한 자연환경 등 노지에서도 고품질 화훼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국민이 꽃을 가꾸고 감상하는 꽃의 생활화가 일상화되어 있어 화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북반구의 비생산시기에 화훼 수출이 가능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수출산업으로 발전해 왔고,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을 통한 발전 전략을 추구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비디움은 뉴질랜드의 대표적 수출 품목이다. 그러나 최근 다소 감소하는 경향에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일본의 경기 침체와 항공 화물 선적 공간 부족, 항공 운송비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경우 수출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화훼 재배업자들이 새로운 외래 품종을 도입해서 자신의 지역조건에 적응해 나가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 이들 품목의 수출 가능성도 예견된다. 그리고 기존 수출 품목인 Calla, Sandersonia, Nerines, Lilies 등은 수출국의 유행이나 기호에 맞춘 색상이나, 크기, 모양의 다양성 등에 대한 실험에서 많은 발전을 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자국의 자생화훼를 개량해서 현재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의 수출 잠재력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의 화훼 수출은 당분간 기존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 적으로는 자연적 조건을 활용한 새로운 품목들이 수출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시장 또한 일본 중심에서 미국, 유럽, 중국을 비롯한 기타 아시아 국가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발전 가능성과 시사점

1. 원예산업의 발전 가능성

1.1. 수출 확대 가능성

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새로운 작물의 출현과 기술혁신, 시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과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원예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예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원예산업은 그동안 수출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뒤에서 언급할 몇 가지 제약 요인이 있기는 하나 정부의 정책이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데 맞춰져 있고 민간 부문의 참여도 활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전에는 영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으나 근래에는 호주, 일본, 유럽, 미국, 한국 등 수출 시장이 다양화되었고 해외시장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확대를 통한 원예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원예산업은 주로 키위, 사과, 포도주, 채소류 등의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틈새시장에 수출되고 있는 아보카도, 올리브, 여름과

일, 베리프루트 등의 기타 과일도 많은 기술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장차 수출 잠재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낙농이나 육류 등 다른 1차 농산물과는 달리 원예농산물은 가공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신선 상태로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얻으려 할 것이다. 반면에 포도주, 가공채소 등은 고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는 새로운 틈새작물을 발굴하고 기존 작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생산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등 원예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어 수출 증대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농림부는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주요 원예 수출 품목의 수출 증가를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키위는 578백만 NZ달러에서 663백만 NZ달러, 사과 360백만 NZ달러에서 438백만 NZ달러, 포도주는 242백만 NZ달러에서 507백만 NZ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예농산물 총수출은 2002년 21억 NZ달러 수준에서 2006년에는 24.3억 NZ달러로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 원예산업 발전의 긍정요인과 제약요인

그동안 뉴질랜드 원예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원예산업을 둘러싼 제반 요인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발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 요인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것은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일례로 사과, 배 등의 펍프루트 산업과 키위산업에서 화학 약품사용을 최소화 하면서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게 과수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방제관리(IPM)에 대한 연구개발이 공공자금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공공자금에 의한 것보다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다. 민간 부문의 투자는 정부로 하여금 원예산업에 대한 관심과 산업 환경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은 품목별 부과금을 통해 조성되고 있다. 원예산업의 부과금은 연간 7.7백만 NZ달러가 조성되고 있는데, 펙프루트(2.9백만 NZ달러), 채소(2백만 NZ달러), 포도주(1.2백만 NZ달러), 기타과일(1.4백만 NZ달러) 등이 주요 품목이다. 시장규모가 작은 원예농산물도 나름대로 부과금을 조성하고 있고, 몇 년에 걸쳐 조성한 부과금으로 품목 고유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원예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식물위생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수출 품목의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점이다. 키위, 펙프루트와 같이 대규모이고 잘 조직화된 품목일수록 식물위생 관리가 앞서 있는 상태이다. 또한 뉴질랜드는 원예농산물 생산에서 중요한 분야인 용수조달이 용이하다. 뉴질랜드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용수를 이용할 수 있어 포도나 올리브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기가 용이하다.

반면에 뉴질랜드는 원예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은 호주, 일본,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이 식물검역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뉴질랜드의 펙프루트는 일본 시장의 식물 위생 검사 강화로 수출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신선농산물의 안전성 요구가 강화되어 수출업자들의 수출비용이 증가하고 수출절차가 까다로워진 상태이다. 이와 같이 수확 후 새로운 원예학적 유전물질을 활용한 위생시설의 부족은 뉴질랜드 원예산업의 성장과 다양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는 수확 시기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력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수준도 아직 성숙된 단계는 아니어서 생산비 절감에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체리, 화훼류, 신선채소 등과 같이 항공운송에 의존하는 품목의 경우 운송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운송공간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도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2. 시사점

2.1. 농가의 자구노력에 의한 국제경쟁력 향상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기후, 토양 등 자연적 조건이 원예작물 재배에 적합하여 품목이 다양하고 품질 또한 우수한 편이다. 여기에 1984년 이래 이루어진 뉴질랜드의 농정개혁이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정부의 보조금 철폐로 요약되는 뉴질랜드의 농정개혁은 뉴질랜드 농업을 더 번영되게 하였고,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개혁 과정에서 농가들은 그들의 여건을 고려해서 투자하였고, 토지는 시장에서 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규모에 맞게 보유하였다. 농가의 영농 활동은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전개함으로써 더욱 전문화되고 혁신적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최상의 농산물을 세계에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예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은 자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농정개혁에 부응하여 농가 스스로 규모를 조정하거나 작목을 전환하는 등 자구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뉴질랜드의 경험은 개방경제하에서 농가가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할 수 없고, 가족농도 그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 생존이 가능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2.2. 수출 지향적 체제 유지

뉴질랜드는 협소한 국내시장 때문에 내수 판매보다는 수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작물재배를 차별화하는 등 수출 지향적 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기존의 품목별 Marketing Board를 대부분 해체하고 생산 농가나 전문수출업체가 직접 수출할 수 있게 하였다. 키위와 같은 경우는 생산 농가들이 소유한 회사(Zespri Group Ltd)가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초점도 원예농산물 수출 촉진에 맞추어져 있다. 최근 수출 시장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원예농산물의 식물위생과 품위를 정

부가 보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입국의 요구에 부응해서 뉴질랜드농림부(MAF)와 독립검사기관(Independent Verification Agencies)이 수출 농산물의 식물위생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수입국과 소비자들의 화학 잔류 물질 여부 및 기타 요구에 대해 해당 원예농산물이 생산포장단계 및 수확 후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보증이다. 또한 원예 부문의 생물안전성(Biosecurity)문제도 착수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가 수출하는 원예농산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 농산물의 품질 기준과 마케팅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시장으로 수출되는 키위의 경우 호주에서 다시 아시아 시장으로 더 높은 가격에 재수출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재수출로 인한 뉴질랜드 농산물의 부정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뉴질랜드 원예수출 당국법 (NZ Horticulture Export Authority Act)의 틀 안에서 다양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3. 틈새품목, 틈새시장의 지속적 발굴

현재 뉴질랜드가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원예농산물 면적은 110,000ha 정도인데, 원예작물 생산이 가능한 경지규모가 1,400,000ha 정도로 추정되고 원예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원예작물 재배면적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뉴질랜드는 기후, 토양 등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 다양한 작물 생산이나 가축사육이 가능하다. 사슴산업, 키위산업의 예에서 보듯이 특정 가축이나 작물이 전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키위, 펄프루트, 신선채소, 가공채소 등 전통적인 수출 품목은 현재의 수출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보카도, 올리브, 여름과일 등 시장규모는 크지 않으나 수출 잠재력이 큰 작물은 틈새시장을 겨냥한 수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포도주의 경우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프리미엄급 포도주를 생산함으로써 고품질의 틈새시장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 수출 시장 또한 전통적인 유럽시장에서 아시아시장 쪽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는 아직까지 세계 원예농산물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 선호도와 국제시장의 흐름에 대응한 수출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아가고 있다.

3. 한·뉴질랜드 간 협력 가능성

뉴질랜드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기후 여건상 우리나라와 보완 관계 및 경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키위, 포도 등 과일은 우리나라의 가을, 겨울 등 단경기에 생산되어 보완 관계인 반면, 신선채소, 화훼는 우리의 가장 큰 농산물 수출 시장인 일본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보완 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 키위이다. 뉴질랜드 키위는 재배 농가의 출자로 만들어진 제스프리(Zespri) 그룹의 자회사인 제스프리인터내셔널이 1997년 한국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제스프리는 한국의 키위 재배 조직인 참다래영농조합에 키위를 공급하는데, 참다래영농조합은 한국의 생산시기에는 국산 키위를, 단경기에는 뉴질랜드 키위를 판매함으로써 연중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스프리 입장에서도 연중 공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뉴질랜드가 단경기 때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북반구 국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2003년에 제스프리는 제주도 의 키위농가와 자사의 고품질 신품종 키위인 골드키위에 대해 재배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상호 보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두 나라 모두 연중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되어 키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키위농가에는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키위 외에 두 나라가 보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은 주로 아열대과일 과 구근 화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과와 포도 등 우리나라 과일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은 우리나라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에 뉴질랜드의 아열대과일이나 Berryfruits 등 틈새과일류는 종류도 다양하고 우리나라 농가에 미치는 악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여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기가 용이하다.

화훼류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백합, 튤립 등 구근류의 상당 부분을 주로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있고 뉴질랜드와는 교역실적이 미미하다.⁸ 그러나 뉴질랜드 구근류의 품질은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면서 가격은 품목에 따라 약간 낮은 편이다. 때문에 일본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뉴질랜드에서 구근류를 수입하고 있다.⁹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구근은 국내에서 재배과정을 거쳐 절화 상태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구근의 수입가격이 수출경쟁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뉴질랜드는 구근 농가의 평균 농장규모가 4ha에 이르기 때문에 네덜란드보다 생산비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뉴질랜드 구근농가와 장기계약을 맺을 경우 수입가격과 수입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본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부 원예 품목의 경우는 당분간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키위나 구근 화훼류 등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전략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가 용이하다. 따라서 보완 관계에 있는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농협 중심의 우리 생산자 조직이 적극 나설 경우 협력 가능성은 높다. 이러한 협력 관계가 원만히 정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이익이 되는 방안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⁸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리 온실 도입 등 화훼농가의 시설 현대화가 급진전 되었다. 이때 네덜란드의 유리 온실 기술과 백합 구근이 수입되면서 네덜란드의존도가 높게 되었다.

⁹ 2001년 기준 일본은 뉴질랜드로부터 8,662천구(5.6억엔)의 구근을 수입하였다. 뉴질랜드에서 구근류를 전문으로 재배하는 한 재배업자의 경우 연간 생산량 500천 구 중 절반을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에 수출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참고 문헌

- 신승열, 최세균. 1996.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에 따른 농업 및 무역구조 변화』. 연구보고 R3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日本花普及センター-(編). 2002. 『2002 フラワ-デ-タップシク』.
- Bollard, E.G. 1996. *Further Prospects for Horticulture: The Continuing Importance of Research*. New Zealand Fruitgrowers Charitable Trust: Wellington.
- Davison, R.M. 1996. “Agricultural Land Use Change With Reference to Sheep and Beef Farm Land: Salient Points.” paper G2107. New Zealand Meat and Wool Boards’ Economic Service.
- Forbes, R. and Johnson, R.W.M. 2001. “Recent Trends in New Zeal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Australian Agribusiness Review* 9.
- Johnson, R.W.M., Schroder, W.R. and Taylor, N.W. 1989. “Deregulation and the New Zealand Agricultural Sector: A Review.” *Review of Marketing and Agricultural Economics* 57: 47-71.
- Johnson, R.W.M. 1991. “Current Changes in New Zealand Agriculture: A Review.” *Review of Marketing and Agricultural Economics* 59(2): 130-148.
- _____. 1993. “New Zealand Agricultural Policy Review: 1991-93.” *Review of Marketing and Agricultural Economics* 61(3): 375-400.
- _____. 2002. “Productivity Trends in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s 1972-2002.” Unpublished mimeo.
- Pomeroy, A. 1990. “Effect on Agriculture of Waterfront Restructuring and Need for Shipping Reform.” Discussion paper 1(90). Ministry of Agriculture. Wellington.
- Rae, A.N., Nixon, C. and Lattimore, R. 2003. “Adjustment to Agricultural Policy Reform Issues and Lessons from the New Zealand Experience.” Presented to Policy Reform and Adjustment Workshop.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Wye College. England.
- Srikanta Chatterjee. and Stuart Birks. 2001. *The New Zealand Economy: Issues and Policies*. 4-th ed. Dunmore Press Ltd.

- HortResearch. 2004. *Horticulture facts&figures 2003*.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various issues.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Wellington.
- _____. 2003a. *Agriculture and Forestry in New Zealand: An Overview*.
- _____. 2003b. *Contribution of Land-based Primary Industries to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2003*.
- OECD. various issues. *Agricultural Policies, Markets and Trade*. Paris.
- Statistics New Zealand. 2003a. "Agricultural Production Census-2002." *MAF Horticulture Monitoring Report 2003*.
- _____. 2003b. *New Zealand Official Yearbook 2002*.
- _____. 2004. *Agriculture Statistics 2002*.
- <http://www.fedfarm.org.nz>.
- <http://nzflowers.com>.
- <http://www.maf.govt.nz>.
- <http://www.vegfed.co.nz>.

연구 자료 D193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동향과 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12.

발 행 2004.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